

정규압밀점토의 비배수 전단강도에 대한 이방압밀효과

Effects of an Anisotropic Consolidation on the Undrained Shear Strength of a Normally Consolidated Clay

강 병 회^{*1}

Kang, Byung -Hee

윤 호 창^{*2}

Yoon, Ho -Chang

Abstract

In-situ soil is anisotropically consolidated at rest, and the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at rest K_0 is dependent on the properties of soil and stress history.

In order to estimate roughly the in-situ undrained shear strength of a K_0 -anisotropically normally consolidated clay from isotropic consolidated undrained test, consolidated undrained shear tests with four different consolidation pressure ratios($K=\sigma'_3c/\sigma'_{1c}$) were performed and test results showed $K-\alpha$ relationship, representing the strength ratio α as $(S_u/\sigma'_{1c})_{CKU}=\alpha(S_u/\sigma'_{1c})_{CIU}$.

Strength ratio α increases with increasing consolidation pressure ratio. And the angle of internal friction ϕ' and angle ratio ϕ'_{CKU}/ϕ'_{CIU} are in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K -value.

요 지

수평지반내의 한 지점에 대한 원위치의 압밀상태는 K_0 -이방압밀 되어있으며 토압계수 K_0 값은 흙의 성질과 용력이력에 따라 다르다. K_0 -이방정규압밀점토지반의 원위치 비배수전단강도를 등방압밀시험에 의해서 추정하기 위하여 4가지의 압밀용력비($K=\sigma'_3c/\sigma'_{1c}$)로서 이방압밀시킨 비배수전단시험을 시행하여 $(S_u/\sigma'_{1c})_{CKU}=\alpha(S_u/\sigma'_{1c})_{CIU}$ 로 나타내는 강도비 α 와 압밀용력비 K 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강도비 α 는 압밀용력비가 클수록 증가하고 내부마찰각 ϕ' 와 ϕ'_{CKU}/ϕ'_{CIU} 비도 압밀 용력비가 클수록 동시에 증가한다.

*1 정회원,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유신설계공단 공항부

1. 서 론

자연상태의 수평점토지반은 K_0 -응력상태로 압밀되어 응력유도이방성(stress induced anisotropy)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실험상의 편리성 때문에 등방압밀삼축 압축시험장치에 의해서 점토의 전단거동을 측정하고 있다. Ladd의 연구⁽⁴⁾ 이외에도 여러학자들에 의해서 이방압밀점토의 전단거동은 등방압밀점토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K_0 -이방압밀점토의 거동은 K_0 -압밀삼축시험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K_0 -압밀장치는 횡방향변형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응력을 가하여 이방압밀시키는 장치로서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이 까다로와 재래식과 등방압밀시험장치에 의해서 전단강도를 구하고 있다.

압밀시험장치의 압밀응력에 대한 이방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Sivakugan⁽⁸⁾ 등의 여러학자들에 의해서 압밀응력비($K = \sigma'_{3c}/\sigma'_{1c}$)가 1.0인 CIU-시험과 K_0 -압밀시험인 CK₀U-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이론식을 제시하였다. 즉 $(S_u/\sigma'_{1c})_{CK_0U} = \alpha_o(S_u/\sigma'_{1c})_{CIU}$ 로 나타내어 전단강도비 α_o 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들관계 즉 α_o 값은 점토의 K_0 값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점토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게 되어 그 실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압밀응력비 K 값을 여러가지로 하여 시험해서 구한 이방압밀 전단강도와 등방압밀전단강도의 비 즉 $(S_u/\sigma'_{1c})_{CK_0U} = \alpha(S_u/\sigma'_{1c})_{CIU}$ 를 구하여 $\alpha-K$ 관계를 나타내어 주므로서 점토에 따라 구해진 K_0 값에 대한 전단강도비 α_o 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압밀응력비 K 가 K_0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시료내의 횡방향변형으로 인해 K_0 압밀상태에서의 흙의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흙의 종류에 따라 다소 오차가 예상된다.

한편 정규압밀점토의 정지토압계수 K_0 는 일반적으로 액성한계, 소성지수, 점토함유율, 간극비 및 기타 다른 지수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로 유효내부마찰각(ϕ')으로 표시되며⁽⁵⁾ 소성지수와의 관계식으로도 표시되고 있다.^(1,5)

따라서 K_0 값을 적당히 추정하여 $\alpha-K$ 관계를 이용하므로서 정규압밀점토에 대한 K_0 -압밀 비배수전단강도를 재래식 등방압밀삼축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 이론식

Sivakugan 등⁽⁸⁾은 포화점성토의 간극수압계수 A_f 와 압밀응력비 K 를 이용하여 등방압밀에 대한 이방압밀의 비배수전단강도비를 식(1)과 같이 표시하였다.

$$\frac{(S_u/\sigma'_{1c})_{CK_0U}}{(S_u/\sigma'_{1c})_{CIU}} = \frac{1+A_f N_\phi - A_f}{1+A_f N_\phi - A_{fk}} [A_{fk}(1-K)+K] \quad (1)$$

식중 A_f , A_{fk} : 등방압밀 및 이방압밀 전단파괴시의 Skempton A계수

$$N_\phi = \frac{\sigma'_{1f}}{\sigma'_{3f}} = \frac{1+\sin\phi'}{1-\sin\phi'}$$

K_0 값을 K_0 로 놓고 K_0 는 Jaky의 공식 $K_0 = 1 - \sin\phi'$ 를 적용시키면 식(1)은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S_u/\sigma'_{1c})_{CK_0U}}{(S_u/\sigma'_{1c})_{CIU}} = \frac{K_0 + 2(1-K_0)A_f}{K_0 + 2(1-K_0)A_{fk}} [A_{fk}(1-K_0)+K_0] \quad (2)$$

식(1)과 식(2)에서와 같이 비배수전단강도비는 K , A_f , A_{fk} 및 ϕ' 의 함수이다.

여러학자들에 의한 22개의 시험자료⁽⁸⁾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A_f 은 K_0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단강도비는 A_f 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Sivakugan 등⁽⁸⁾에 의하면 $A_{n\ell}$ 값이 비배수전단강도비에 미치는 영향은 A_n 보다 훨씬 더 크며 A_n 값은 다소 잘못 추정하더라도 전단강도비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A_{n\ell}$ 값을 A_n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전단강도비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단강도비를 K 값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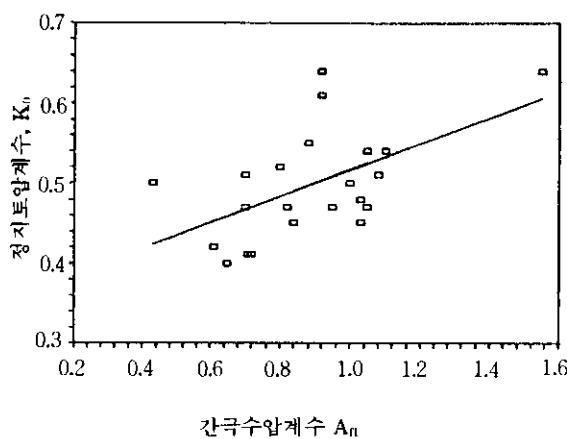


그림 1. 정지토압계수 K_t 와 간극수압계수 A_n 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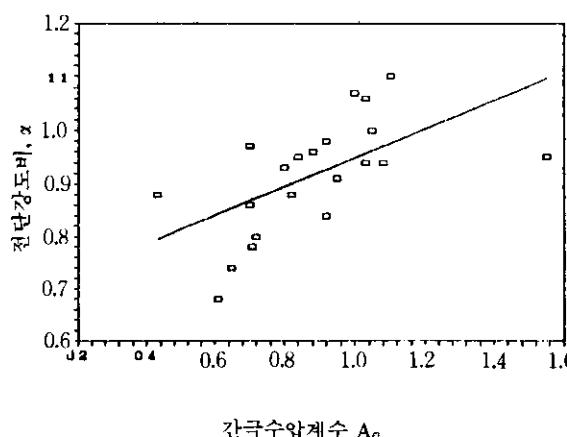


그림 2. 전당강도비 α 와 간극수압계수 A_n 과의 관계

3. 실험

3.1 시료

사용된 시료는 경기도 안산에서 채취한 점성토와 벤토나이트를 2:1의 중량비로서 혼합하여 0.1N 염화칼슘용액속에 넣어 교반시켜서 만든 혼탁액을 실내의 퇴적조에서 약 1.5 kg_f/cm^2 의 응력하에서 퇴적암밀시킨 점토시료이다.

시료는 모두 0.1mm체를 통과하고 점토크기 ($2\mu\text{m}$ 이하)의 함량이 약 50% 정도이며 액성한계 54%, 소성지수 31.8, 수축한계 10.5%, 함수비 53~57%, 토립자비중 2.69이다.

3.2 비배수삼축시험

이방암밀삼축시험기에 의한 CKU-시험으로서 이방암밀장치는 lever type 장치를 이용하였다.

먼저 $1.0\text{kg}_f/\text{cm}^2$ 의 배압을 가하여 시료 및 전시험계통을 포화시킨후 암밀응력비가 1.0, 0.7, 0.5 및 0.4가 되도록 유지시키면서 횡방향 유효응력이 1.2, 1.5 및 $1.7\text{kg}_f/\text{cm}^2$ 가 될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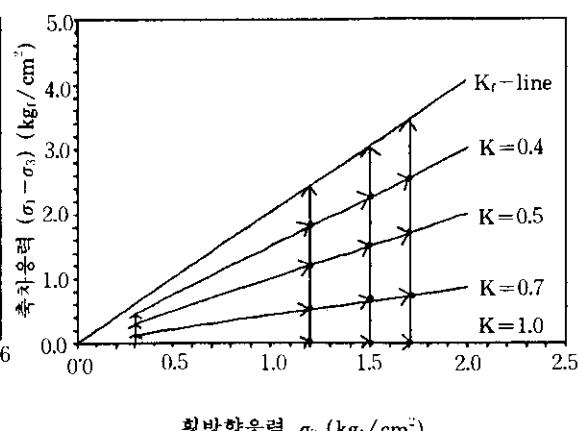


그림 3. 암밀비배수시험의 응력경로

단계별로 횡방향 및 축방향응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압밀시켰다. 즉 그림 3에서와 같이 먼저 $0.3\text{kg}_f/\text{cm}^2$ 의 응력으로 동방압밀시켜 공시체를 안정시킨 다음 각 시험의 압밀응력비에 따른 예정된 응력경로에 따라 횡방향응력과 축방향응력을 동시에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압밀시켰다. 압밀이 완료된 후에 $0.1\%/\text{min}$ 의 변형속도로 압축시켜 전단응력을 가하였다.

4. 실험결과 및 토론

4.1 실험결과

실험결과는 표 1과 같으며 각 시험의 응력경로는 그림 3과 같다.

4.2 응력-변형률

그림 4에 의하면 동일한 크기의 횡방향 압밀응력(σ'_{3c})하에서는 K 값이 작을수록 즉 최대암밀주응력(σ'_{1c})이 클수록 최대축차응력($\sigma_1 - \sigma'_3$)_{max}는 커지며 이 점에 이르는 변형률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K 값이 작을수록 시료에 가해지는 압밀응력의 크기가 작으므로 압밀에 의한 합수비 및 간극비의 감소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크기의 압밀응력하에서도 K 값이 작을수록 최대축차응력은 크다는 사실을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즉 평균암밀응력($\sigma'_{mc} = 1/3(\sigma'_{1c} + 2\sigma'_{3c})$)으로 정규화한 최대축차응력은 K 값이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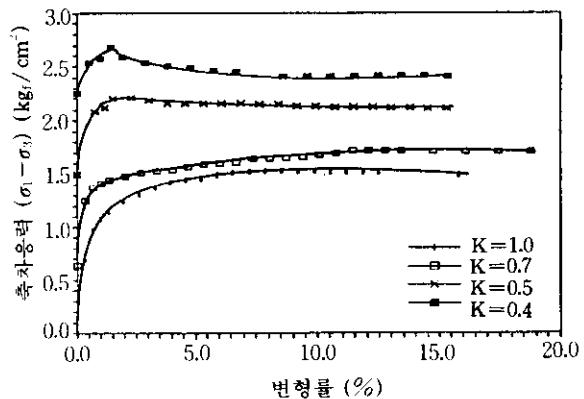


그림 4. 응력-변형률곡선의 압밀응력비별 비교
($\sigma'_{3c} = 1.5\text{kg}_f/\text{cm}^2$)

표. 1 압밀비배수삼축압축시험 결과

단위 : kg_f/cm^2

시험종류	σ'_{3c}	σ'_{1c}	σ'_{mc}	$(\sigma'_1 - \sigma'_{3c})_o$	$(\sigma'_1 - \sigma'_{3c})_{max}$	S_u	S_u / σ'_{1c}	S_u / σ'_{mc}	ϕ'
CIU-1.0-1.2	1.2	1.2	1.2	0.0	1.25	0.63	0.52	0.52	29.9°
CIU-1.0-1.5	1.5	1.5	1.5	0.0	1.53	0.77	0.51	0.51	
CIU-1.0-1.7	1.7	1.7	1.7	0.0	1.70	0.85	0.50	0.50	
CAU-0.7-1.2	1.2	1.71	1.37	0.51	1.40	0.70	0.41	0.51	
CAU-0.7-1.5	1.5	2.14	1.71	0.64	1.72	0.86	0.40	0.50	28.6°
CAU-0.7-1.7	1.7	2.43	1.94	0.73	1.83	0.92	0.38	0.47	
CAU-0.5-1.2	1.2	2.4	1.6	1.20	1.77	0.89	0.369	0.554	
CAU-0.5-1.5	1.5	3.0	2.0	1.50	2.21	1.10	0.368	0.552	25.6°
CAU-0.5-1.7	1.7	3.4	2.27	1.70	2.48	1.24	0.365	0.547	
CAU-0.4-1.2	1.2	3.0	1.8	1.80	2.14	1.07	0.357	0.596	25.3°
CAU-0.4-1.5	1.5	3.75	2.25	2.25	2.68	1.34	0.357	0.595	
CAU-0.4-1.7	1.7	4.25	2.55	2.55	3.00	1.50	0.354	0.589	

$$\ast \sigma'_{mc} = 1/3(\sigma'_{1c} + 2\sigma'_{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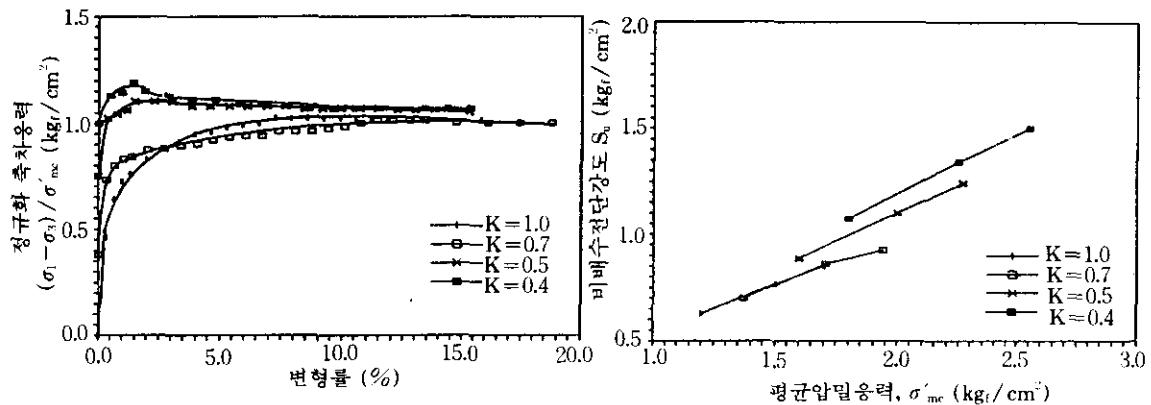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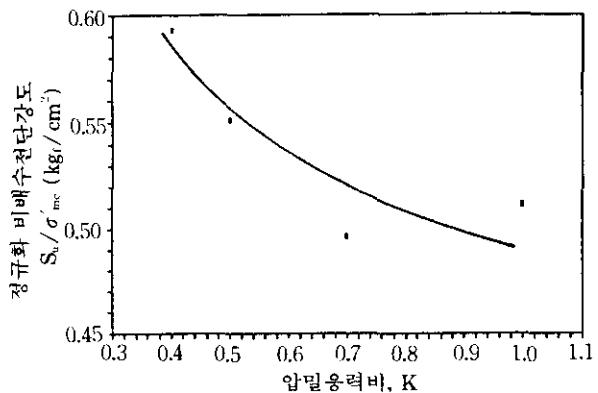


그림 5. 평균압밀응력비으로 정규화한 축차응력
-변형률 곡선($\sigma'_{\text{sc}} = 1.5 \text{ kg}/\text{cm}^2$)

그림 6. 평균압밀응력에 따른 비배수전단강도의 변화



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점토시료는 이 방향이 일어나는 동안에 최대주응력방향으로 더 잘 저항할 수 있도록 점토의 구조가 이 방향으로 발달되어 강도의 이방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4.3 전단강도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압밀응력비에 대해서 횡방향 압밀응력(σ'_{sc})이 클수록, 그리고 동일한 σ'_{sc} 에 대해서 K값이 작을수록 비배수전단강도는 증가한다. 이는 K값이 작을수록 평균압밀응력(σ'_{mc})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는 σ'_{mc} 가 클수록 비배수전단강도는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나 K값에 따라 이를 직선은 일치하지 않고 K값이 작을수록 크다. 이러한 사실을 그림 7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K값이 클수록 $S_u / \sigma'_{\text{mc}}$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방압밀에 대한 강도의 이방성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그림 8에서 $S_u / \sigma'_{\text{sc}}$ 값은 횡방향 압밀응력(σ'_{sc})의 증가에 따라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미세하게 감소하나(표. 1 참조) K값의 감소에 따라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K값이 작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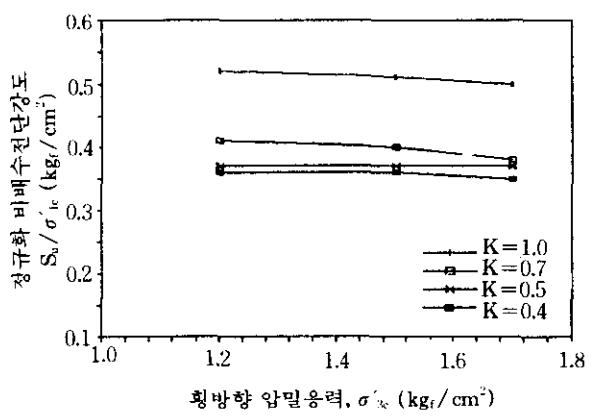


그림 7. 압밀응력비에 따른 $S_u / \sigma'_{\text{mc}}$ 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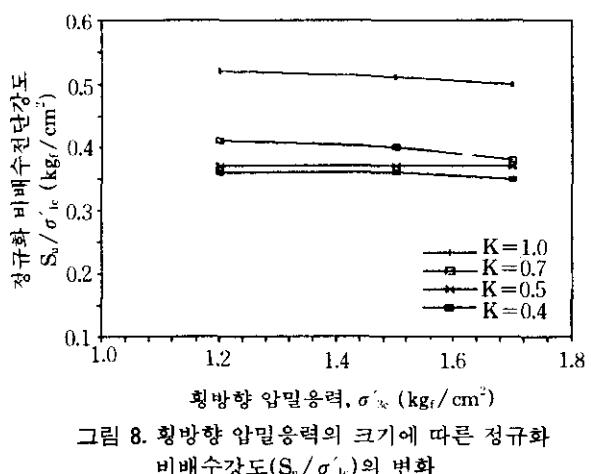


그림 8. 횡방향 압밀응력의 크기에 따른 정규화 비배수강도($S_u / \sigma'_{\text{sc}}$)의 변화

σ'_{mc} 가 크고 또한 이방압밀상태하에서 발달한 강도의 이방성때문이다. 이 관계를 다시 이방 압밀상태의 정규화 전단강도(S_u / σ'_{1c})_{CAU}를 K = 1.0인 등방압밀상태의 정규화 전단강도(S_u / σ'_{1c})_{CIU}로서 나눈 전단강도비 α 를 K값에 따라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K값이 클수록 전단강도비는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토시료의 K₀값은 0.5 정도이므로 전단강도비는 0.72이다. Mayne⁽⁶⁾에 의하면 정규압밀점토에 대한 전단강도비는 0.70~1.15 범위내에 있으며 평균치는 0.88정도이다.

따라서 실내에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등방 압밀삼축시험결과를 통하여 연직유효응력을 근거로해서 구한 비배수전단강도는 K₀-압밀상태로 존재하는 원위치에서의 정규압밀점토의 실질적인 비배수전단강도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Skempton의 간극수압이론으로부터 구한 식(1)에 의한 전단강도비와 실험에서 구한 전단강도비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치와 실험치가 잘 일치한다.

그림 11에서는 각 시험의 응력경로를 나타내었으며 수정파괴포락선의 절편은 영이며 경사각으로부터 구한 내부마찰각은 K값이 0.4, 0.5, 0.7 및 1.0인 경우 각각 25.3°, 25.6°, 28.6° 및 29.9°이고 이를 그림 12에서 다시 나타내었다. 그리고 K ≠ 1.0이 아닌 이방압밀에 의한 내부마찰각 ϕ'_{CAU} 와 등방압밀에 대한 ϕ'_{CIU} 와의 비를 K값에 따라 그림 13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들 두 그림에서 K값이 클수록 ϕ' 값은 증가하고 ϕ'_{CAU}/ϕ'_{CIU} 비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K=0.5인 본 연구의 점토시료에 대해서는 이내부마찰각비는 약 0.87정도이다. Mayne⁽⁶⁾에 의하면 정규압밀점토에 대한 이 내부마찰각비의 평균치는 약 0.97이라고 한다.

5. 결 론

압밀응력비의 크기가 정규압밀점토의 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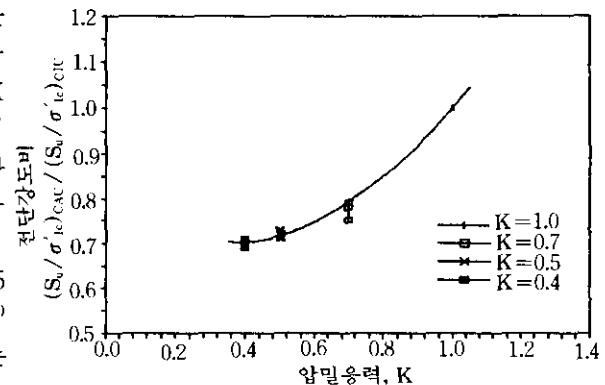


그림 9. 압밀응력비와 전단강도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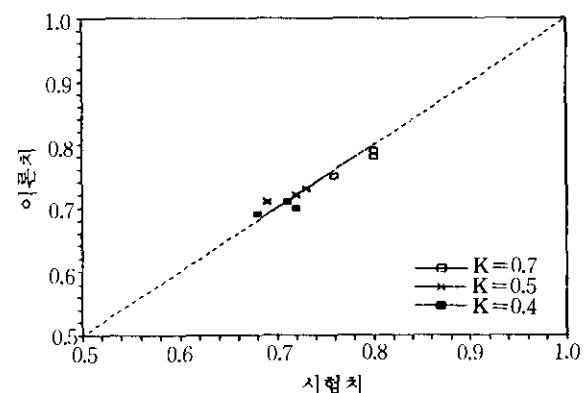


그림 10. 전단강도비(S_u / σ'_{1c})_{CAU} / (S_u / σ'_{1c})_{CIU}에 대한 이론치와 실험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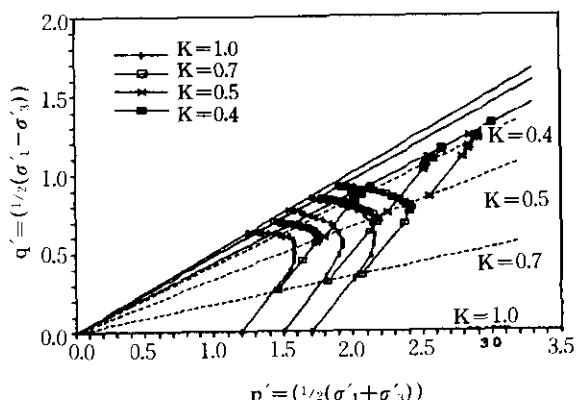


그림 11. 각 압밀응력비에 대한 $p' - q'$ 좌표상의 응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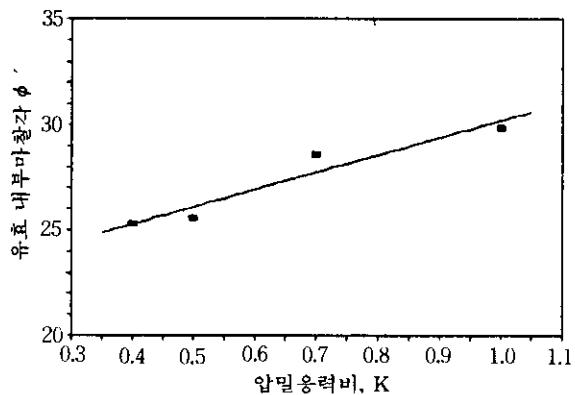


그림 12. 압밀응력비의 크기에 따른 내부마찰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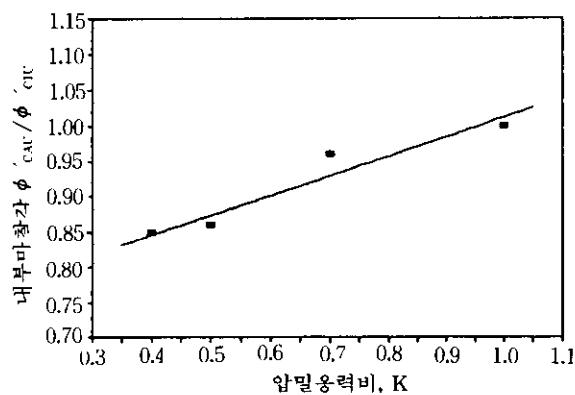


그림 13. 압밀응력비와 내부마찰각비와의 관계

수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압밀응력비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시행한 비배수삼축압축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한 크기의 횡방향압밀응력에 대한 최대축차응력은 압밀응력비가 작을 수록 크다.

2) 이방압밀점토의 정규화 비배수전단강도 (S_u/σ'_{1c}) 및 전단강도비 ($(S_u/\sigma'_{1c})_{CU}/(S_u/\sigma'_{1c})_{CIU}$)는 압밀응력비가 클수록 증가한다.

3) 동일한 크기의 평균압밀응력(σ'_{mc})으로서 정규압밀시킨 점토의 비배수 전단강도는 압밀응력비가 작을 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정규화비배수전단강도 S_u/σ'_{mc} 도 압밀응력비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

로서 이방압밀에 의한 점토의 응력유도이방성을 나타낸다.

4) 유효내부마찰각(ϕ')은 압밀응력비가 클수록 커지며 ϕ'_{CAU}/ϕ'_{CIU} 비도 역시 압밀응력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참 고 문 헌

- Brooker, E.W. and Ireland, H.O., "Earth pressure at rest related to stress history," Canadian Geotechnical Journal, Vol. 2, No. 1, 1965, pp. 1~15.
- Broms, B. and Ratnam, M.V., "Shear strength of anisotropically consolidated clay," J. SMFD, ASCE, Vol. 89, No. SM6, 1963, pp.1~26.
- Duncan, A.M. and Seed, H.B., "Anisotropy and stress reorientation in clay," J. SMFD, ASCE, Vol. 92, No. SM5, 1966, pp.21~50.
- Ladd, C.C., "Stress-strain behavior of anisotropically consolidated clay during undrained shear," Proc. 6th ICSMFE, Montreal, Vol. 1, 1965, pp.282~286.
- Ladd, C.C., et al., "Stress deformation and strength characteristics," State-of-the art report, Proc. 9th ICSMFE, Vol. 2, 1977, pp. 421~496.
- Mayne, P.W., "Stress anisotropy effects on clay strength," J. GED, ASCE, Vol. 111, No. GT3, 1985, pp.356~366.
- Nakase, A. and Kamei, T., "Undrained shear strength anisotropy of normally consolidated cohesive soils," Soils and Foundations, Vol. 23, No. 1, 1983, pp.91~101.
- Sivakugan, N., Holtz, R.D. and Chameau, J.L., "CK₀UC shear strength of normally consolidated clays from CIUC tests," J. GED, ASCE, Vol. 114, No. GT3, 1988, pp. 284~295.

(접수일자 1994. 1. 3)